



201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지난달 4일(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흥일 연구위원과 허윤경 연구위원이 각각 내년도 건설 경기와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하였고, 이어 진행된 스페셜 세션에서는 이영환 연구위원이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관련 향후 건설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흥일 연구위원은 "2015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해 건설경기 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신규 시장 호조, 투자 수요 유입 등 긍정적 지표가 시장을 견인해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2.0% 상승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14 한·일건설경제워크숍'에서 안전 관련 주제 발표

연구원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3차 한·일건설경제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일건설경제워크숍'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 전문가들이 양국의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모임이다. 연구원에서는 올해 이영환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공공 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20차 ASIACONSTRUCT Conference'에 참여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홍콩에서 개최된 '제20차 ASIACONSTRUCT Conference'에 연구원의 빈재익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빈재익 박사는 "한국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여 각국 건설 전문가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ASIACONSTRUCT Conference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4개국의 건설 전문가들이 매년 개최지를 바꿔 가면서 참석하는 총회로서, 연구원은 제1차 모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내년 총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 금융 세미나' 주관

연구원은 지난달 13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 금융 세미나'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주최하였고, 연구원과 건설경제가 함께 주관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총 3건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현식 건국대 교수가 "주택·부동산 PF시장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 이병식 하나은행 프로젝트금융부장이 "PF 사례로 본 부동산 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전태홍 산업은행 프로젝트금융부장은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PF 조달 트렌드"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다. CERIK